

생태문명

: 생태문명의 의미와 생태문명이 인류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

애런 게어(Arran Gare)

호주 스윈번기술대학 교수 · 환경철학

2007년 중국 정부는 '생태문명'을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로 삼았다. 2012년 생태문명 달성목표는 중국의 환경정책, 법률, 교육의 체제로 헌법에 포함되었고, 5개년 경제 계획에도 목표로 포함되었다. 2017년 제19차 공산당 대회는 이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환경 피해를 개선하고 오염을 줄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에 대한 지출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코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Cornelius Castoriadis)의 용어를 빌면 '새로운 사회적 상상'(Hansen, Li and Svarverud, 2018)으로 전 세계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되고 홍보되었다.

실제적인 의미는 비교적 간단하다. 생태문명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조건인 '에너지, 물, 자원, 심지어 정보와 같은 어떤 설비의 잔재가 다른 설비의 투입물이 되는 것'과 같은 순환 경제와 관련이 있다(Geall and Ely, 2018, p.1189). 그러나 생태문명은 종종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하거나 덜 의미한다고 받아들여진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지구적 규모의 생태 파괴와 그러한 파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마비를 자본주의 역학 관계의 주요 동력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중국의 보다 급진적인 환경주의자들은 생태문명에 대한 탐구와 생태사회주의를 위한 투입을 명시적으로 연관짓는다. 그들은 지구촌의 생태사회주의 문명의 창조를 인류 전체의 목표로 보고 있다. 이것은 2016년까지 중국 환경보호관리부 차관이자 정부 차원에서 생태문명의 선도적 대표였던 판 위에(Pan Yue)의 견해이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무기를 사용하여 "생태문명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생산과 생활양식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회주의는 생태문명에 대한 체제 차원의 동기부여와 안전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Wang, 2014, p.10). 그는 또한 이것이 인류 전체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중국은 생태계 파괴,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중국인들은 탈출할 곳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이 목표를 실현하는 데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an, 2005; Gare, 2012; Gare, 2020). 그는 자연에 대한 강한 관심을 특징으로 하는 중국의 전통 문화가 이러한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 위에는 생태사회주의(2010)의 주요 지지자인 베이징 대학 마르크스주의 연구소의 환 칭지(Huan Qingzhi)(2016)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환 칭지(2010, p.11)에게 생태문명을 건설하는 것은 '더 푸르고 더 생산적인 정치생태학으로 기능할 수 있는 생태사회주의의 새로운 패턴'이었다. 판 위에와 함께 중국사회과학원 도시환경연구소의 판 자화(Pan Jiahua) 소장은 생태문명을 통해 시장을 종속시키고 지역 차원의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Pan Jiahua, 2016; Martinelli, 2018, p.380ff). 칭화대

학의 루 펑(Lu Feng)은 생태문명과 그 실천이 현대문명과 도시문명을 부정하고 초월하여 사람들이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경제, 사회, 문화 제도의 틀과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Huan, 2016, p.55).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공유되지 않는다. 문명의 개념에는 문제가 있다. 영어에서 '문명'이라는 개념은 불분명하며 이 용어를 사용하는 프랑스어와 독일어에는 서로 다른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 중국어로 '생태문명'은 shengtai wenming으로, shengtai는 '생태'로 번역되고 wenming은 '문명'으로 번역된다. 중국에서 'wenming'이 사용되는 방식은 영어에서의 '문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중국인들이 '정치문명', '정신문명', '산업문명'이라고 할 때 이는 정치, 문화, 경제 생활에서의 좋은 가치, 능력, 관행을 암시한다. 런민대학의 장 윈페이(Zhang Yunfei)(2019)는 생태문명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는 관행으로서 다양한 사회를 다른 정도로 특징 짓는데, 충분한 수준의 생태문명을 달성하지 못한 사회는 존재 조건을 파괴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생태문명은 흔히 산업문명 뒤에 오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중국이 생태문제를 완전히 다루기 전에 완전한 산업화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해결책을 활용하여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학적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도 해석된다(Gordon, 2018). 모든 중국 사람들이 생태문명을 새로운 세계 질서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기꺼이 '생태문명'을 생태적 책임감을 표방하면서 이를 중국의 정책과 동일시하는 구호로 내세우고 있다.

이후 생태문명의 개념은 2013년에 제창된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와 결합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생태문명'을 환경문제 경감을 위한 정책에서 더 나아가 경제적 세계화를 포용하고 자신의 경제 발전을 위해 세계 각국과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 이는 미국이 19세기 이후 영국의 자리를 빼앗으며 지배적인 패권국으로서 자국 영토 밖의 자원들에 대한 접근성을 얻었던 것과 같이 미국의 자리를 넘보며 자본주의 체제에서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에게 있어 생태문명이라는 구호는 부차적인 것이 아닌지 의문을 자아낸다. 기후 불안정으로 인해 중국이 서유럽이나 북미보다 더 큰 위협에 직면했다는 판 위의 지적이 옳을 수도 있으나, 중국의 해결책은 지구 생태파괴로 인한 결과를 중국, 최소한 자국 내 부유한 엘리트 계층이 겪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시 한다. 이는 미국과 서유럽의 신식민주의를 모방하고 세계 경제와 대양들의 주변과 준주변부를 착취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아프리카 개입은 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일부 사례에서 다수의 국가들이 빚을 떠안으며 중국의 더 큰 통제를 받게 되었다(Lokanathan, 2020). 중국은 세계 어류 생산의 38%를 차지하며, 중국의 세계 어선들은 계속하여 전 세계의 어업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Mantesso, 2020). 이들의 관행은 금세기 중반 내로 원양 어업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Worm, 2016). 에일린 크리스트(Eileen Crist)(2019)는 세계 각국과의 계약을 동반하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이로 인한 환경파괴를 지구 생태계에 대한 중대한 위협들 중 하나로 본다. 매

트 하슬로프 한센)Matte Halskov Hansen), 홍타 리우(Hongta Li), 룬 스바르베르트(Rune Svarverud)(2018)는 생태문명의 개념은 판 위예의 제언과 같은 중국 전통문명과 마르크스주의 사이의 관계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중국이 과거의 영광과 현재 세계에서 지배적 지위를 되찾는 탐험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구의 앞날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상상을 만들어내는 원정이라고 주장한다.

이 모든 것과 중국, 그리고 다른 곳에서의 생태문명의 의미, 또 중국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맥락에서 중국 생태문명의 주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적 맥락에서의 생태문명

먼저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환경운동가들은 중국 환경운동가들과는 관계없이 생태문명의 개념을 받아들였다. 생태문명을 고취하는 『풍요로운 지구: 생태문명을 향해(Abundant Earth: Toward an Ecological Civilization)』(2019)에서 에일린 크리스트(Eileen Crist)는 중국의 경제 발전이 중국과 전 세계에 생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검토하면서도 중국인 지지자들의 생태문명 개념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생태학적 쟁점과 관련하여 세간의 이목을 끄는 영국의 저널리스트 조지 몽비오트(George Monbiot, 2019)는 2019년 발행된 기사 '자본주의가 우리 모두를 무너뜨리기 전에 감히 죽음을 선언한다(Dare to declare capitalism dead-before it takes us all down with it)'에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 생태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지만 생태문명에 대한 제레미 렌트(Jeremy Lent)의 촉구를 언급한다. 렌트는 고대 중국과 조화의 관계에 대해 논하는 도서 『The Patterning Instinct: A Cultural History of Humanity's Search for Meaning』(2017)의 저자이다. 이 책에서 렌트는 생태문명을 언급하지 않지만, 2018년 <openDemocracy>에 실린 '더 늦기 전에 생태문명이 필요하다(We need an ecological civilization before it's too late)'에서는 '우리의 문화·경제 체제의 근간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했으며, 시진핑 주석이 생태문명은 중국의 장기적 비전의 핵심 요소라고 공표했다는 데 주목했다. 그리고 그는 중국 이론가들에 대한 언급 없이 생태문명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생태문명은 자연 생태계에서 공존하는 생물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원칙들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생태계가 어떻게 스스로 조직되는지에 대한 통찰은 우리가 지속가능한 풍요를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인간 사회를 어떻게 조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공한다. 유기체는 각자가 호혜적으로 주고받으며 다수의 공생 관계를 발전시킬 때 번창한다.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한 종의 노폐물은 다른 종의 자양분이 된다.

가장 저명한 서양의 생태문명 지지자들은 미국 과정사상연구소(Center for Process Studies)의 사람들이다. 오래도록 이어져온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그들은 베이징 대학에 적을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판 위에와 노선을 함께하는 중국의 유력 인사 왕쩌허(Wang Zihe)를 초대했다. 이는 필립 클레이튼(Philip Clayton, 2014, 2019)과 왕쩌허를 주요 주창자로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의 유기체 철학과 마르크스주의를 통합시키는 '유기적 마르크스주의(Organic Marxism)'에 영감을 주었다(Wang, Gao and Fan, 2013). 이러한 발전은 화이트헤드의 연구를 중국 대학에 도입하는 것과 연관되었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를 유기적 마르크스주의자로 홍보한 것은 중국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중국 학자들은 이를 중국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종교적 침투이자 중국의 경제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시도라며 공격했다(Wang, He and Fan, 2014). 유기적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중국 내부의 반발은 진정되었지만, 이러한 이념 충돌은 중국 내부의 이념 차이와 국제적 운동으로서 생태문명을 추구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소련의 새로운 생태문화 탐구의 기원

화이트헤드의 철학과 마르크스주의를 통합시키려고 처음 시도한 것은 유기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아니었으며, 그러한 노력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더욱 폭넓은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 생태문명에 대한 중국 용어의 출처는 농업경제학자 첸지 예(Qianji Ye)가 쓴 글이었다. 소련에서 활동하며 1984년 과학사회주의를 전문으로 하는 학술지인 <The Journal of Moscow University>에 실린 첸지 예의 논문은 '생태문화'를 옹호했다. 해당 글은 1987년에 중국 신문에 실렸는데 '생태문화'는 '생태문명'(shentai wenming)으로 번역되었다(Huan, 2016, p.52). 이렇게 해당 용어가 처음 쓰이게 되었고, 이 기사가 받아들여지면서 생태문명이 중국에서 전체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생태문화의 개념을 만든 것은 첸지 예가 아니다. 소련에서는 1970년대부터 줄곧 '생태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강하고 영향력 있는 움직임이 있었다(Manin, 1983; Gare, 2020). 소련 정부의 주요 인물인 프롤로프(Ivan T. Frolov)는 바실레바(T.V.Vasileva), 엘크(V.A.Elk) 등과 함께 <Ecological propaganda in the USSR>에 게재한 논문에서 생태문화의 개념을 도입했고, 바실레바는 같은 해에 이 주제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프롤로프는 생물학을 부전공으로 하는 과학 철학자이자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고문이었다. 그는 훗날 소련의 주류 이념 잡지인 <코뮤니스트(Kommunist)>와 주류 신문 <프라우다>의 편집자가 되었다. 고르바초프가 소련공산당 총서기장이 되기 직전인 1985년, 그는 보스턴 대학의 철학과 과학사 센터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지구적 생태 위기에 맞서는 것을 통해 냉전을 극복하고 인류를 하나의 목표로 인류를 통합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태문화의 지지자들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받아들인 문화는 실제로 1920년대에 시작된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에서 이어진 것이었다. 이는 알렉산드르 보그다노프(Alexandr Bogdanov)가 시작하고 영감을 주어 볼셰비키의 Vpered(Forward)파가 추진한 급진적 형태의 마르크스주의의 일부였다(Gare, 1994; White, 2019; Gare, 2020). 이 운동에는 볼셰비키 정부의 초대 교육위원 아나톨리 루나차르스키(Anatoly Lunacharsky)가 참여했으며, 그는 레닌에 의해 환경보호 책임자가 되기도 하였다. 보그다노프는 사회의 토대와 상부구조 모델에 대한 조잡한 해석을 기술적 결정론이라고 거부하였다. 또한 마르크스가 자신을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선언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로, 기술과 이데올로기는 (토대와 상부구조가 아니라)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Engels, 1962, p.486). 이러한 급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과학을 포함한 새로운 문화(Proletkult)를 만들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이해의 결핍과 왜곡을 극복하고 부르주아 계급과 그 경영자들의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White, 2013). 보그다노프는 새로운 조직과학, 즉 테크톨로지(Tektology)를 개발했는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세계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조직할 수 있고, 노동자와 관리자 사이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다. 새로운 문화를 위한 운동은 1918년 레닌의 지지를 받았고(White, 2019, p.392) 이후,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를 포함한 소련 외부의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Merli, 2013, p.427ff.).

생물학은 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심리학과 함께 소련의 생물학은 제3의 길(생기론도 기계론도 아닌, 비환원적 자연주의)로 알려진 것의 중심적 위치에 자리 잡았다. 생물군집과 유기체의 상호연관성에 초점을 맞춘 생태학은 이전의 학문적 경계(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학, 지질학, 화학, 생물학 사이의)에 도전하면서 이 새로운 과학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Weiner, 1987; Gare, 1994). 볼셰비키 혁명 이전에도 러시아는 생태학 및 기타 지구과학 연구의 주요 중심지였으며, 특히 생물공동체의 공생에 초점을 맞추었다(Rispoli, 2014). 이 연구는 생태계가 아닌 생물군집에 대한 연구로서 유기체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생물들의 존재조건과 추가적인 진화를 위한 조건을 증진시키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피터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의 민주연방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1920년대 소련의 생태학 연구는 열역학을 창시한 엥겔스(Engels)의 아이디어와 함께 매우 독창적이고 세계 어느 곳보다 발전하였다(Weiner, 1987, ch.6). 1920년대에 생태학은 블라디미르 베르나츠키(Vladimir Vernadsky)의 생물권과 인간생활권에 대한 개념을 지지했던 루나차르스키(Lunacharsky)의 강한 지지를 받았다.

자연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많은 생태학자들의 주장은 스탈린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적대적인 박해를 받았지만, 이러한 급진적 과학의 움직임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나중에 더글러스 와이너(Douglas Weiner)가 출판한 책 『자유의 작은 모퉁이(A little Corner of Freedom)』(1999)의 제목에서 묘사한 것과 같은 형태로 지속

되었다. 1920년대 소련에서의 연구는 영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급진 과학자들, 특히 생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보그다노프의 영향을 받은 니콜라이 부하린(Nicolai Bukharin)은 소련 대표단을 이끌었는데, 1931년 6월 런던에서 열린 과학컨퍼런스에 참가하여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소련의 연구를 전달하였다(Jenna and Rispoli, 2019). 이 회의에 러시아가 기여한 바는 같은 해에 『교차로에 선 과학(Science at the Crossroads)』(1971)로 출판되었고 편집은 부하린이 맡았다. 스탈린의 치하에서 러시아인 대부분이 박해받았고 부하린은 처형되었지만, 이 컨퍼런스는 물리학의 진보, 마르크스주의, 엥겔스의 자연의 변증법, 독일과 러시아 생물학의 발전, 그리고 A.N.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 등에서 영감을 받은 일부 영국 생물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Peterson, 2017, p.55). 이들은 생물학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에 헌신적인 사회주의자들이었으며, 1931년 회의에 참석한 조지프 니덤(Joseph Needham)과 C. H. 와딩턴(Waddington)이 중 가장 두드러졌다. 그들은 1932년에 이론생물학 클럽을 설립하였고 그들의 연구 프로그램을 '수학-물리-화학적 형태론'으로 정의하였다. 이 단체는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에 반발했던 워런 비버(Warren Weaver)로 인해 케임브리지 대학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록펠러 재단의 지원도 중도 철회되었다(Peterson, 2017, p.119). 이후 와딩턴은 에든버러 대학으로 해당 단체를 옮겨 이론생물학 발전을 계속 추진하였다.

1950년대에는 이 모든 연구 프로그램들이 무시되고 소외되었지만, 1960년대에는 생태학적 파괴와 급진주의가 대두하면서 이들의 아이디어가 지지를 얻고 성공적으로 알려졌다. 와딩턴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스위스의 벨라지오에서 이론생물학에 관한 주요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으며, 와딩턴이 편집한 회의록 네 권이 『이론생물학을 향해(Towards a Theoretical Biology)』(1968-72)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는 변증적 생물학, 재난이론, 복잡계이론, 계층이론을 포함한 후기 환원주의 생물학의 후속 발전에 참조점을 제공하는 국제 이론생물학 운동을 일으켰다(Gare, 2017a, 2017b). 초창기의 이론생물학자들의 초점은 개별 유기체의 형태 형성에 있었지만, 거기서 발전된 개념은 다른 모든 과학으로 일반화되었다. 그들은 또한 생태학을 발전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와딩턴은 특히 세계 자본주의에 의해 야기된 환경 문제에 점점 더 관심을 가졌다. 그의 마지막 작품인 『인간이 만드는 미래(The Man-Made Future)』(1978)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미래가 어떻게 되던, 그것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이다. 전 세계 종들이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그것은 인구, 식량공급, 에너지, 천연자원, 오염, 도시의 상황 등과 같은 일련의 주요 세계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분리할 수 없이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는 이 중 어떤 것도 적절하게 고립하여 다룰 수 없다.(p.9)

인간은 시장의 힘이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만들 것이다. 와딩턴은 1920년대부터 반한

원주의적 제3의 길을 계속 지지해온 소련의 이론생물학자나 생태학자들과 서신을 주고받았다. 1974-75년에는 에스토니아 과학아카데미의 동식물학연구소 시스템생태학부의 칼레비 쿨(Kalevi Kull)과 서신을 주고받았고, 그에게 『이론생물학을 향해(Towards a Theoretical Biology)』 네 권을 보냈다. 1976년에는 타르투(Tartu)에 이론생물학 단체가 설립되어 에스토니아 생물학의 반기계론 전통을 되살리고 생태학과 이론생물학에 대한 가장 최신의 연구들과 이론생물학 관련 국제컨퍼런스를 열었다. 이 회의는 모스크바의 과학자들로부터 높이 평가됐으며, 생태문화라는 아이디어의 발전과 생태문명의 추구라는 재구성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중국의 연결: 조셉 니덤과 중국의 과학과 문명

와딩턴이 이론생물학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동안, 케임브리지 대학의 생화학 교수직을 맡고 있던 니덤은 과학의 역사에 눈을 돌렸다. 처음에 그는 서양 과학에서 발생학의 역사에 초점을 맞췄지만, 그 후 러시아인들에게 영감을 받아 과거 서양 과학의 성공과 현재의 실패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후기 역사연구에서 17세기 자본주의의 발전과 과학적 유물론의 부상 사이의 관계를 소련의 과학사 학자들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의 저서는 유럽과 중국에서 『중국의 과학과 문명(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권 출판되었다. 그는 성문화된 법의 발전이 자연에 대한 은유로 사용하면서 자연이 어떻게 불변의 법칙에 따라 무의미하게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물질로 파악되는지 보여주었다. 이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사회 질서를 정당화하고, 자연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유지하고 확장함으로써 경제이론과 기타 인문과학으로 확장하려는 편향도 갖는다. 과학사에 대한 니덤의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은 로버트 영(Robert Young)에 의해 지속되었는데, 로버트 영은 『다윈의 은유(Darwin's Metaphor)』(1984)에서 다윈주의가 어떻게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의 문화적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보여주었다. 당시 경제발전은 노동계급의 가난, 피식민자들을 황폐화시키는 식민주의와 연결되었는데, 경제학으로 특징지어지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자연에 대한 은유로 보고, 이것을 과학으로서의 경제학과 자본주의의 잔혹한 결과를 옹호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러나 니덤은 라이프니츠에서 시작하여 헤르더, 셸링, 헤겔, 마르크스, 엥겔스, 알렉산더, 로이드 모건을 거쳐 화이트헤드까지 이어지는 반(反)전통을 확인했다. 움직이는 물질 대신에, 위의 사상가들은 자연을 감각, 의식, 정신을 일으킬 수 있는 관계적 과정이나 활동 패턴의 영역으로 생각했다. 니덤은 이 전통을 특징짓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방식이 중국 사상, 특히 12세기 송나라 신유교 철학자 주희가 라이프니츠에게 끼친 영향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니덤은 갈릴레이-뉴턴 과학의 전통에 반대하는 궁극적인 원천인 라이프니츠의 눈부신 독창성은 주희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주희에 따르면, 자연은 음과 양이라는 서로 반대하지만 상호 침투하고 상호

지지하는 원리나 힘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는 에너지(기)의 패턴(리)으로 구성된다. 니덤은 주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그의 뒤에는 중국의 상관적 사고의 완전한 배경이 있었고, 그의 앞에는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가 있었다.'(Needham, 1956, p.291; Needham, 1969). 근대 과학이 유럽에서 기원한 반면, 탈환원주의 과학은 환원주의 과학 유물론을 초월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사상을 흡수하였고, 현재 모든 문명의 최고를 끌어당기는 세계적인 과학이 되고 있다.' 니덤이 말했듯이, '중국의 관료주의와 그로부터 생겨난 유기체주의는 그리스 중상주의와 그것이 탄생시킨 원자론처럼 자연과학의 완벽한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로 판명되었을지도 모른다.'(Needham, 1956, p.339).

그는 '아마도 사회주의는 중국 중세 관료제의 껍데기에 갇혀 억압 받았던 정의의 정신이었을 것이다. 중국의 기본적인 전통은 유럽의 전통에 비해 '과학적인 세계 협동 조합 연방'과 더 일치할 지도 모른다'(Needham, 1969, p.202)고 하였다. 니덤의 관점에서 사회주의 생태문명의 매력도 이해할 수 있다. 중국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주로 빈곤과 군사적 굴욕을 극복하기 위해 서구의 산업화 사상을 동화하고자 수용된 반면, 중국의 전통 문화는 사람을 상품화하거나 도구로 취급하지 않는 미덕으로서 유교가 장려한 사람에 대한 인애와 존경의 가치를 유지했다. 700년 동안 중국 철학을 지배한 장자, 저우 둔이(Zhou Dunyi), 청(Cheng) 형제 및 주자가 개발한 송나라 성리학은 자연의 본질적인 가치와 자율적 역동성을 지지한다. 중국에 대한 니덤의 연구는 와딩턴의 이론생물학 연구와 일치하며, 이는 중국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지적 전통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니덤의 영향을 받아 생태학과 생태학적 사고를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니덤의 예측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Gare, 2014).

니덤의 연구는 중국이 생태사회주의적으로 세계 생태문명의 발전을 촉진시킬 독특한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판 위에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그러나 판 위에, 왕쩌허, 유기체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니덤을 마르크스주의와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종합하려는 노력의 선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생태사회주의 문화로서의 생태 문명

생태문명의 개념은 1920년대 소련의 Vpered 그룹, 니덤의 연구와 이것이 1970년대와 1980년대 소련에 미친 영향에 비추어 볼 때 중국에서 기원했지만, 단순히 중국의 사상운동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중국의 생태문명에 대한 요구, 소련에서 생태문화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던 러시아인들은 적대적인 지적 환경에 맞서 투쟁하는 급진적인 과학자와 철학자의 훨씬 광범위한 글로벌 운동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사고의 형태, 즉 사회주의를 만들고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의식,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창조적인 자연에서 창조적 참여자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이다. 보그다노프, 루나차르스키, 베르나츠키, 와딩턴, 니덤

모두 전지구적 생태문명이라는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했지만, 그들의 연구는 생태문명이라는 개념이 중국에 소개되고 중요한 지위를 가지게 된 과정, 그리고 생태문명의 뜻하는 것에 대한 합의의 실패에 대한 배경을 제공한다. 프롤로프와 생태문화를 주장한 다른 러시아인들은 루나차르스키의 문화를 사람들이 생산하고 스스로를 조직하는데 필요한 의식의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주의는 이전 문화의 결합을 극복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새로운 문화의 발전을 요구한다. 탈환원주의 과학의 발전은 이런 발전의 핵심이다. 보그다노프, 루나차르스키, 베르나츠키, 와딩턴, 니덤, 프롤로프는 모두 반권위주의적 생태사회주의자들이었다. 과학계에서는 그들의 연구를 자본주의가 낳은 주류 과학에 대한 도전이자 진정한 사회주의를 창조하는 중심으로 보았다. 니덤의 작업은 중국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하고, 중국에서 생태문명이란 개념이 부상하고 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지게 된 문화적 배경을 제공했다. 생태문명은 과학계의 급진적인 사회주의 전통에 의해 뒷받침된다. 따라서 생태문명은 자본주의 문화와 그것이 '자연'으로 정당화하는 삶(생명)의 형식에 대한 매우 근본적인 도전을 수반하며, 반대로 자본주의에 도전하고 사회주의적 삶의 형식을 제도화하기 위해 설립된 운동, 제도 및 정부의 궤도를 정당화하고 유지한다. 또한 사회주의적 세계질서를 창조하기 위해 삶의 의미를 확인한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고방식의 씨앗이 발판을 마련하면, 특히 공동체에 대한 정의에 이것이 포함될 때, 사회와 문명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혁신을 준비할 수 있다. 생태문명을 중국의 공식 서사로 만드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홍보행사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사회주의의 위대한 서사가 생태사회주의의 형태(Gare, 2020)로 되살아났다. 샘 겔(Sam Geall)과 에이드리언 엘리(Adrian Ely)가 'Narratives and Pathways to Ecological Civilization in Contemporary China'(2018)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서사는 향후 몇 년 안에 중국과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질서로의 경로로서 힘과 영향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마리넬리의(Marinelli)의 견해(2018, p.375ff.)이기도 하다. 1970년대 자본주의의 마지막 주요 진보를 촉발한 환원주의적 유물론, 신자유주의의 거대서사로서의 사회적 다원주의를 대체할 서사로서 생태문명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자 하고 있다.

결론

문명은 항상 야만과 퇴폐의 반대로 정의되어 왔으며, 후기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소비주의의 퇴폐와 첨단 야만의 결합에 직면하고 있다(Stiegler 2011). 고대 로마인들과 르네상스 철학자들에게 문명인들은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그들에게 문명인은 교양 있거나 교육 받았으며, 자신의 자유를 이해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방어하는 데 필요한 덕목을 가지고 있고, 더 넓게는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

람들이었다. 고대 '문명'에서는 노예, 농노, 소작농의 가혹한 노동에 의존하고 부양받는 소수의 인구만이 문명화될 수 있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억압적인 일을 기계로 할 수 있고 전체 인구가 문명화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으며 사회와 자연 공동체의 삶을 진보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력은 자본주의 구조에 내재된 모순으로 인한 내재적 불안정성이다. 후기 자본주의의 진보는 현재 세계경제의 핵심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그들을 비문명화하고, 심지어 사람들의 소비가 프롤레타리아화 되고 그들의 경제상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자기 방종의 삶을 자유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제임스 오코너(James O'conor, 1998)가 주장했듯이 가장 중요한 모순은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생태적 조건의 파괴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도시와 농촌 사이에 조성되는 대서적 균열뿐만 아니라 숲의 파괴를 통해 기후를 변화시키는 자본주의가 환경에 미치는 재앙적 영향에 높은 관심을 가졌다(Saito, 2018, ch.6).

생태학은 '유기체'의 '집' 또는 '집'의 체계, 즉 존재조건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기체'는 생태계, 사람 및 그 공동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개별 유기체 자체는 고도로 통합된 생태계 또는 생물 군집이다. 생태학은 생태계와 같은 유기체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성공하거나 실패하는지를 조사하여 생물 군집과 이러한 군집들이 참여하는 더 넓은 군집으로서의 회복력을 증가시킨다. 주류, 환원주의자들의 과학적 유물론, 자본주의 문화의 기본 가정에 도전하는 과학인 것이다(Ulanowicz, 1997; Gare, 2017b). 생태학과 함께 인간 생태학은 경제학과 다른 인간 과학, 그리고 윤리학과 정치학을 다시 생각하는 데 필요한 사고 형식과 존재 범주를 제공한다(Gare, 2002 & 2010; Gare, 2017b; Hornborg, 2019a and 2019b). 생태문명은 이러한 범주를 기반으로 하는 문명으로서 각 개인, 조직, 국가와 지역을 포함한 각 공동체의 자아실현이 조화되어 인류 전체의 자아실현을 위한 조건을 확대하고, 다른 모든 종, 개인, 조직, 공동체, 현재 지구 생태계 체제를 비롯하여 인류가 진화하고 의존하는 생태 공동체의 건강과 생명을 증대시킨다.

생태문명에 대한 탐구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세계적인 운동으로 이해되어야 하지만, 중국은 미래에 대한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아담 스미스가 예측한 것처럼 유럽과 그들의 식민지를 통한 세계 지배에 마침내 도전하며 이제는 거침없어 보인다(Arrighi, 2007; McCoy, 2017). 중국이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세계질서로 세계를 이끌 이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한 판 위에가 옳았다. 중국은 이처럼 거대한 생태 문제에 직면해 있고 중국 전통 문화와 마르크스주의 사상과 같은 서구 문화의 정수를 통합하는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혁을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생태문명의 개념은 중국에서 채택된 방식으로는 불분명해 보이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처음 제기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 즉 새로운 사회적 상상으로 홍보

된 것은 판 위의 주장에 뒷받침한다. 그의 이상과 중국과 인류에 대한 비전, 혹은 그와 동조했던 사람들에게 대해 회의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 엘리트 권력의 일부 구성원이 자본주의 자체를 대체하기보다는 자본주의 세계질서 내에서 지배적인 헤게모니 권력으로서의 미국을 대체하기를 희망하면서 권력과 부를 위해 투쟁하고자 생태문명의 개념을 냉소적으로 사용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중국의 억만장자들은 글로벌 기업집단에 합류하고 신식민주의를 지지하고 경쟁 엘리트들과 동맹을 맺어 주변부를 착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배적인 패권에 도전하는 자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들이 전형적으로 자신들을 구 패권국보다 우월한 이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주장하는 이상에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20세기 전반에 영국이 쇠퇴할 당시, 독일과 미국 사이의 권력 투쟁에서 미국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우드로 윌슨이 이끄는 동맹의 설립을 지원했으며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강력한 추진력에 힘입어 유엔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각 국가의 자결권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승리했다. 반면 독일은 제국의 주요 강대국인 영국과 프랑스에 합류하거나 이들 국가를 대체하려고 노력했다. 미국과 다른 우방국들이 지역 인구와 천연 자원을 착취하기 위해 매판적 엘리트를 선택하는 신식민주의의 후속 발전으로 타락하는 동안(Bunker, 1986; Hudson, 2003; Arrighi, 2007, p.253f.; McCoy, 2017), 미국의 이상은 자신들이 자유세계의 옹호자라는 주장을 통해서만 남아있었다. 이러한 자결 국가에 대한 비전은 사람들의 자유를 어느 정도 발전시켰고, 공산주의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에 대한 미국의 약탈 행위를 제한했다. 신식민주의는 구식민주의보다 덜 억압적이었다.

생태문명의 개념을 세계자원에 대한 권력과 통제력을 확대하기 위한 이념 전선으로서 냉소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현재 전략이라면 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의 핵심 지역이 주변부와 반주변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국제 시장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나폴레옹 전쟁 이후인 19세기 영국, 그리고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강제로 부과되고 유지되어 왔다. 노르웨이의 평화 연구 창시자 요한 갈통(Johan Galtung, 2009)이 소련의 붕괴를 10년 전에 성공적으로 예측한 것처럼 미국은 전 세계의 군사기지를 포함하여 세계 제국을 해체하기 시작하였다. 자본주의는 시장 관계를 강요하고 유지하기 위해 무력을 필요로 한다. 중국은 이 점에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결코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이미 아프리카에서는 중국의 독단이 반발을 사고 있으며(Venkateswaran, 2020), 알프레드 맥코이(2017, ch.7)와 그레이엄 앨리슨(2017)에 따르면 이것이 미국과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면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이 패권적 세계 강국으로서 미국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생태문명을 위한 전 지구적 운동은 모든 형태의 억압과 그로 인한 생태 파괴에 대한 투쟁일 뿐만 아니라 권력과 지배를 위한 경쟁적 투쟁에 기초한 시스템에 대한 투쟁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 운동은 미국이 세계의 자원을 통제하고자 자국의 군사력을 사용하여 세계

시장을 작동하게 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반대해, 일찍이 베이징 컨센서스가 추구했던 전략이기도 하다.

판 위에와 그의 동맹은 장기적으로는 승리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생태문명을 위한 새로운 세계적 운동은 정의와 인류애에 기반한 전 지구적 생태사회주의 체제를 위해 시장을 지배하고 통제하여 그것이 공동체를 섬기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중국인들을 지지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자신들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진정으로 자신과 인류 전체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Arrigi 2007, p.387ff.).